



# IPv6 포럼 코리아

IPv6 포럼 코리아(<http://www.ipv6.or.kr>)는 지난 2000년, 정부의 지원 하에 IPv6 기술의 국내 조기 도입을 목표로 IPv6 도입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적시성 검토, IPv6 관련 시장 활성화, IPv6 기술의 교육 및 보급, IPv4 기반의 인터넷에서 IPv6 기반의 차세대인터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조성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로 만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IPv6 포럼 코리아는 ETRI를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의 73개 기관회원과 158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장인 이형호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장)를 중심으로 국내 정부 지원 IT 핵심 포럼 중에서 가장 활발한 포럼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형호**

IPv6 포럼 코리아 의장  
ETRI 표준연구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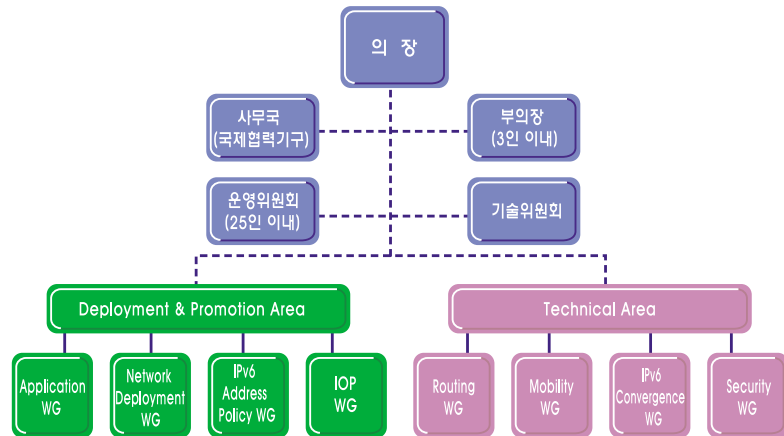
지난 6년 동안 본 포럼은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IPv6 기술 교류 및 보급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기반 조성 노력을 강화해 왔으며, 국제 IPv6 포럼(<http://www.ipv6forum.com>)과 연계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국내외에서 IPv6의 도입 및 Promotion이 충분히 활성화됨에 따라 IPv6 포럼 코리아는 2005년을 IPv6 관련 포럼 표준화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효율적인 포럼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국내외의 IPv6 관련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조직구성

IPv6 포럼 코리아는 포럼 의장을 중심으로 하부에 3인 이내로 구성된 부의장과 사무국,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8개의 개별 WG(Working Group)을 Deployment & Promotion Area와 Technical Area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럼표준을 위해 제안된 문서의 포럼표준 채택여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각 Area의 AD(Area Director) 및 WG 의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IPv6 포럼 사무국은 포럼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포럼의 국내외의 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포럼의 주요 활동 계획 및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의결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2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포럼의 IPv6 관련 도입 및 홍보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 포럼내의 WG을 Deployment & Promotion Area와 Technical Area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Deployment & Promotion Area는 응용 WG, Network Deployment WG, IPv6 주소정책 WG, IOP(Interoperability) W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echnical Area는 Routing WG, Mobility WG, IPv6 Convergence WG, Security WG으로 구성되어 있다.

IPv6 포럼 코리아는 연 6회의 정기 총회 및 수시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 과정을 거치며, 각 WG별 현안사항은 연중 수시로 개최되는 WG별 회의에서 의결된다. IPv6 포럼 코리아는 2005년에 새롭게 정비한 조직을 기반으로 각 WG별

2006년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IPv6 포럼 코리아 회원운영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각 WG별 활동 장려 및 포럼표준의 제정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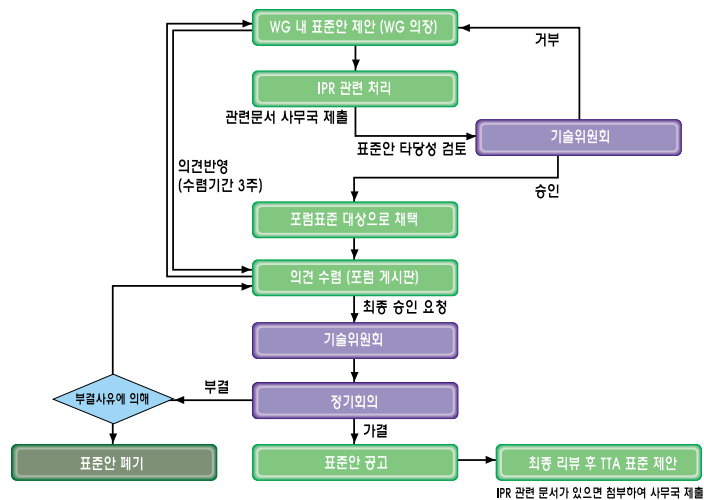


IPv6 포럼 코리아 조직도

## 주요활동

IPv6 포럼 코리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연 6회의 정기 총회 및 수시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와 각 WG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IPv6 정책 수립 및 국제 IPv6 포럼에 대한 국내 대응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다른 포럼들간의 상호 협력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포럼의 활동은 IPv6 도입 및 Promotion 분야와 IPv6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IPv6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의 2005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의 IPv6의 도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됨에 따라 본 포럼은 표준화 분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IPv6 포럼 표준 제정 절차를 수립하고, 각 WG에서 제안된 포럼 표준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 및 정기회의의 승인을 거쳐 포럼 표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포럼표준으로 채택된 표준안을 TTA에 단체표준 초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단체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표준화가 가능하다. 또한, 제정된 포럼표준안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ETF, ITU-T와 같은 국제 표준기구에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5건의 포럼표준안(포럼표준 3건, 가이드라인 2건)이 제안되었으며 포럼표준 3건



IPv6 포럼 코리아 포럼 표준안 제정 절차

이 기술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다. 2005년 포럼의 IPv6 관련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통해 IETF 기고서 35건과 ITU-T 기고서 8건을 비롯하여 36건의 TTA 단체표준 초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미국, 중국, 스페인에서 개최되었던 Global IPv6 Summit 행사 및 APNIC 정례회의 등에 포럼 차원에서 참석하여 한국의 IPv6 도입 및 관련 기술의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IPv6 관련 포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05년 IPv6 포럼 코리아 회원사 워크숍 행사장면

IPv6 도입 및 Promotion 분야의 2005년 주요 활동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 주도의 IT839 인프라 합동 전략협의회(의장: 정보통신부 장관) 활동과 연계하여 국내 산업체의 IPv6 활성화 및 3대 인프라인 BcN, RFID/USN, IPv6간의 컨버전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차세대인터넷 기술개발 및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둘째로, 포럼의 각 WG간 기술 교류 및 국내 IPv6 전문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포럼에서는 IPv6 기술워크숍을 2005년 4월과 9월에 2회 개최하였다. 2005년에 개최한 두 번의 기술워크숍에서는 IPv6 컨버전스, 보안 및 이동성 지원기술, 응용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회원들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최신 IPv6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최된 기술워크숍은 IPv6 포럼 코리아 회원사 워크숍과 공동으로 개최되어 포럼 회원사 및 회원들간의 상호 교류에 이바지 하였다.



Global IPv6 Summit in Korea 2005 행사장면

셋째로, 국내의 IPv6 관련 행사 중 최대 규모인 Global IPv6 Summit in Korea 2005 행사를 2005년 7월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국내의 산·학·연·관의 IPv6 전문가를 비롯하여 총 36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IPv6 비전 등을 주제로 총 9개의 초청 발표가 있었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위한 이동성 지원, 보안, 컨버전스, 그리고 국내에서의 IPv6 관련 시범서비스 및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22개의 기술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총 13개 산업체 및 기관에서 IPv6 관련 장비의 전시 및 시연이 있었다. 더불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주관하는 국내 IPv6 관련 장비들의 상호운용성을 시험하는 ION(Interoperability On!) 이라는 장비 상호운용성 시험과도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또한, Summit 행사 기간 동안에 한·프랑스 정부간 협력회의 및 한·호주간 IPv6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본 포럼과 다른 나라들간의 국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IPv6 포럼 코리아의 회원인 ETRI의 신명기 박사와 삼성의 최진혁 박사가 국제 IPv6 포럼의 CTO Executive Committee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고, IPv6 포럼 코리아가 국제 IPv6 포럼의 중요한 협

력 파트너로 부상한 한 해가 되었다. 또한, IETF에서는 IPv6 over IEEE 802.16(WiBro/WiMAX)이라는 주제를 다룬 16ng WG을 창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ITU-T에서는 NGN(차세대 네트워크)관련 표준화 활동에서 IPv6 분야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함으로써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Pv6 포럼 코리아는 국내 IPv6 도입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IPv6의 전환을 앞당기는 산·학·연의 협의체로서 국제 IPv6 전문가 양성은 물론 IPv6 관련 기술개발 및 국내외 표준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지금까지 IPv6 관련 표준화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지 않은 장기적인 선행기술 표준화에 주력해왔다. 이와 같은 표준화는 새로운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산·학·연이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는 자국 제품의 핵심기술 표준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확보 및 자국 시장보호 등을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표준화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06년 IPv6 포럼 코리아에서는 각 WG별 활동을 강화하고 포럼표준 제정을 활성화하여 포럼표준 제정절차에 따른 WG별 포럼표준 제안을 장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WG별 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표준화 활동을 권장하여 포럼을 통해 제정된 포럼표준이 TTA표준을 비롯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ETF, ITU-T, 국제 IPv6 포럼 등에서 IPv6 관련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포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국내 IPv6 전문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한 IPv6 기술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Global IPv6 Summit in Korea 2006 행사도 2006년 6월에 개최함으로써 국내 IPv6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 IPv6 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한·중·일 차세대인터넷 실무협의체 회의 및 AP(Asia Pacific) IPv6 Task Force 활동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